끝나지 않은 버마항쟁, 우리의 투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글 · **뚜라** thura21@hanmail.net

지난 8월 15일 갑작스럽게 일어난 기름값 인상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버스들이 운행을 못했고 또한 운행한 버스들이 과도한 버스요금을 요구했기 때문에 버마의 수도인 얀곤과 대도시에 이동의 문제가 생겼다. 따라서 물가도 인상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과 불만은 극에 달했다. 그러면서 다음날 16일부터 곳곳에서 시위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결국은 전 국민들이 군부에 저항하는 대규모의 평화적 항쟁이 시작됐다.

민주화를 위한 버마인들의 자발적 활동

1년 전, 17년 동안 감금되어 있다가 석방된 88세대 국민운동 학생지도자들이 석방 되자마자 빠른 속도로 얀곤과 대도시에 퍼졌다. 매주 화요일마다 빠짐 없이 하얀색 셔츠를 입고 파고다(탑파)에 가서 아웅산 수지와 정치 수감자들의 석방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 인권운동가들의 끝없는 지역 활동, 법을 어기는 군부를 법적으로 항의하는 인권 변호사들의 용감한 모습들, 돌봐줄 사람이 없는 AIDS 환자들을 보살펴 주는 사회 활동가들,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죽도록 일해도 밥 한 끼 사먹을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1인 시위를 하는 사람들, 감금되어 있는 운동가들의 가족들에게 힘이 되어주기 위해 찾아간 88세대 지도자들의 수감자 가족방문, 이 모두가 10년 이상 억압과 탄압 속에서도 조용히 이뤄지고 있던 버마 민주화 운동가들의 또 다른 국민적 운동이다.

88세대 지도자들은 군부 당국에 "버마는 이 고통과 굶주림 그리고 모든 문제점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국가적 통합(수십 년 동안 무장투쟁하고 있는 소수민족들과의 평화, 소수민족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야당인 NLD(민주국민연맹)와의 정치적 이해 관계와 문제 해결)을 먼저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군부는 꼭 소수민족, NLD와 민주화를 향하는 정치적 회담을 열어야 한다. 버마의 문제는 아웅산 수지를 잡아서 또는 모든 지도자들을 잡아서 감금만하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군부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버마 곳곳에서 민주화를 쟁취하겠다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전국 여기 저기 들려오기 시작했다.

"이러한 일들은 버마의 이번 항쟁이 일어나기 1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다. 지난 상황들을 다시 꺼낸 이유는 이번 버마항쟁이 외신에 나온 것처럼 기름값 인상 때문에 갑작스럽게 분노가 터져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선 일반적인 시위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다. 다시 말해서 기름값 인상 때문에 일어난 항쟁이 아니고 1988년 이후부터 계속 준비해왔던 군부에 저항하는, 19년만의 계획적인 또는 평화적인 민주항쟁이란 말을 하고 싶어서이다."

단순한 시위가 아닌 19년 동안 준비된 항쟁

이러한 일들은 버마의 이번 항쟁이 일어나기 1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다. 지난 상황들을 다시 꺼낸 이유는 이번 버마항쟁이 외신에 나온 것처럼 기름값 인상 때문에 갑작스럽게 분노가 터져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선 일반적인 시위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다. 다시 말해서 기름값 인상 때문에 일어난 항쟁이 아니고 1988년 이후부터 계속 준비해왔던 군부에 저항하는, 19년만의 계획적인 또는 평화적인 민주항쟁이란 말을 하고 싶어서이다. 불교 국가인 버마의 운동 역사에 스님들이 주도적이지 않았던 때가 없었다. 이번에도 스님들의 평화적 행진이 있었지만 군부는 야만적인 탄압으로 스님들까지 죽였다. 버마 역사상 식민지 시대에도 없었던 일들이, 그야말로 상상도 못한 일들이 일어났다. 9월 20일이 지날 때까지 국민운동집행본부의 지도 하에 스님,

사진제공 조모아

학생, 시민, 노동자 등 수 많은 사람들이 참가한 대규모의 시위가 전국에 걸쳐 일어나고 있지만 군부는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며 대책을 세우고 있다. 갑자기 외교부장관이 중국에 가고 어떻게 논의 됐는지는 밝히지 않지만 9월 26일부터는 총을 쏘고 무자비한 탄압을 시작했다. 이후 유엔 안보리에서 버마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 결정한 회의에서 중국이 절대적으로 반대 입장을 보였다. 가면 갈수록 경제적 이익에 눈 먼 나라들의 개입이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총칼을 들고서도 자신들의 권력이 안전하지 않은 군부는 평소에도 10가구에 1인 감시체계를 만들어 한 밤 중에도 군인들이 개인의 집에 들어가 국가보안법을 빌미로 잡아가고, 자신들에게 저항하는 대규모의 항쟁이 일어나자 수도를 비롯해서 모든 도시를 전쟁터로 생각하며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 사찰에 강제로 진입하여 수 천 명의 스님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큰스님들을 죽이고 절에 있는 물건들을 훔치고 건물까지 부셔서 버마 전통의 모든 것을 파기하려고 하고 있다.

얼마나 많은 스님들을 잡아갔는지 감옥이 모자라서 대학교를 감옥으로 만들어 감금하고 있으며 스님을 고문하고 강제로 승복을 벗기는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시위에 참여한 스님들이 야만적인 군부와 관계자 모두를 불교신자로 인정하지 않으며 이들이 주는 밥을 공양하지 않는 일이다. 종교적인 투쟁으로 저항하며 단식투쟁까지 벌이고 있는 것이다. 잡혀가지 않고 절에 남은 스님들도 밖에 나가지 못하고 공양을 하지 않는 스님들에게 물이라도 가져다 준 사람은 2년의 징역형을 받는다.

이번 항쟁에 희생당한 사람은 1천 명 이상이며 지금까지 실종자 수는 정확하게 확인 되지 않았지만 수 백 명이 실종됐다는 말이 돌고 있다. 감금된 사람들이 6천 명이 넘는데 그 가운데 스님은 1천 명 이상이다. 고대문화의 역사와 불교문화가 전통적으로 내려온 나라, 착하고 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나라, 이 버마에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버마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본질적 모습

버마는 자원이 풍부한 나라다. 반세기 동안 국제사회와 경제적인 관계가 없어도 배고프지 않을 정도로 내부 자원이 풍부하다. 하지만 경제를 모르는 군부는 국가 자원을 팔아먹는 일, 그 외에는 모르고 있다. 1990년 이후부터 시장경제를 하면서 해외투자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나라를 제대로 팔기 시작한 것이다. 나라의 자원을 팔아서 군부의 세력을 50만까지 확대하고 군부는 그 나라를 판 돈으로 총칼을 사서 국민들의 가슴에 들이대기 시작한 것이다.

“
버마는 자원이 풍부한 나라다. 반세기 동안 국제사회와 경제적인 관계가 없어도 배고프지 않을 정도의 내부 자원이 풍부하다. 하지만 경제를 모르는 군부는 국가 자원을 팔아먹는 일, 그 외에는 모르고 있다. 1990년 이후부터 시장경제를 하면서 해외투자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나라를 제대로 팔기 시작한 것이다. 나라의 자원을 팔아서 군부의 세력을 50만까지 확대하고 군부는 그 나라를 판 돈으로 총칼을 사서 국민들의 가슴에 들이대기 시작한 것이다.
”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만을 생각하며 군부의 비인간적인 폭력을 침묵하고 있는 나라는 아시아 국가들이다. 그 중 대표적으로는 중국, 인도, 싱가포르, 일본, 한국이다. 인도는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 요즘 들어 군부와의 관계를 돈독히 맺고 있지만 버마 민주화에 힘쓰는 일도 했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싱가포르는 최근에 입장을 바꿔서 버마군부에게 민주화를 위해 변화하라고 강력히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아직도 침묵하고 있다. 더구나 군부의 상황을 알면서도 군부에게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팔고 무기 제조 기술을 전달하며 공장까지 세워준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모두가 깊이 고민해야 할 일이다.

누가 뭐라 해도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는 군부에 저항하면서 오래 세월을 한국에서 보냈다. 버마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면서 동시에 한국 사회에 같이 살아가고 있다. 독재자에 저항하며 민주화를 희망했던 똑같은 역사적 배경이 있는 한국이 버마의 민주화에 누구보다 앞서서 함께 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현재 외신에서 군부에 저항하는 버마의 시위가 아쉽게도 끝났다는 보도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우리 시대의 역할을 우리 세대가 끝내고 가야한다. 군부는 버마에서 사라져야 한다. 우리도 열심히 투쟁하겠지만 국제사회가 함께 해주어야 한다. 국제사회라면 서양 국가들보다 동양 국가들이 더 중요하다. 군부는 지구촌의 다른 쪽에 있는 서양국가에 대해서는 조금도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나 아시아 국가들이 강하게 나오면 변하게 되어 있다.

더 이상 버마에 피를 흘리지 않고 평화적으로 민주화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소수민족, NLD와 함께 민주화를 향한 정치적 회담이 성사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목소리에 한국 정부가 변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매주 화요일마다 서울 종각역 1번 출구에서 12시부터 1시까지 ‘free burma campaign’을 하고 있습니다. 버마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에게 필요한 활동 지원과 탄압받은 부상자, 희생자, 정치수감자들을 위해 모금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주소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cafe.naver.com/freeburma

글 **뚜라** | 버마행동 대표. 버마행동은 버마의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버마 민주화 운동 단체이다. 11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 내 연대와 많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에 거주한 버마인과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방송, 캠페인, 버마 국경지역 난민지원, 버마 국내 활동가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